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37 광주 김치축제

남도 맛의 진수 “광주 김치가 최고지라~”

전라도를 찾는 사람들은 시각, 후각, 미각 '3각'을 사로잡는 남도의 맛 때문에 광주·전남을 찾는다. 남도의 맛 가운데 김치맛은 으뜸이다. 남도 사람들의 깊은 손맛이 밥상의 기본 반찬인 김치를 한 차원 다른 고향의 맛으로 끌어올린 덕분이다.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김치의 맛과 멋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잔치가 열린다. '2008 광주김치축제'가 15일~19일까지 5일 동안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김치는 문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김치담그기 등 체험위주 8개 마당, 56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지난 8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이벤트광장에서 열린 '스타와 함께 하는 사랑 김치 담그기'에서 개그우먼 김미화(왼쪽에서 네번째), 배우 박철민(7세번째)씨 등 연예인 김치메니아들과 박해구(오른쪽 끝) 광주시 관광과장이 직접 담근 김치를 손에 들고 '2008 광주김치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10월15일~19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일원



◇상설전시 프로그램=광주 김치축제 상설전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김치오감박물관'이다. 김치오감박물관은 지난해 처음 선보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김치 전시가 아닌 김치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는 ▲김치는 문화다 ▲김치의 역사 '시간을 담은 맛' ▲김치오감체험 '다감 상상방' ▲대통령상 수상작 갤러리 '맛의 예술' ▲한국의 김치 '팔도김치장독대' ▲과학으로 만나는 김치 '숨은 과학 찾기' ▲시민전시장 '나만의 김치레시피' ▲관람후기 '김치는 문화다!' 등 모두 8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이 행사는 김치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직

접 참여하고, 전시의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경연 프로그램>=해설이 있는 '김치담그기체험관'이 눈길을 끈다. 관람객이 해설자로부터 광주의 맛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김치담그기 시연을

통김치 담그기 경연'과 '우리집 김치 요리경연', '목은지 퓨전요리 경연'도 펼쳐진다. 김치명인들이 진행하는 '전라반지', '풀고 추얼무김치', '갯물김치', '알타리무 김치' 등 김치명인 아카데미도 진행된다. 김치 오감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의 요리비

솜씨를 예술로 승화한 무대다. 행사기간 동안 민속박물관 앞 '술밭사이 예술무대'에서는 모두 18개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국악한마당 '소리노리'를 비롯해 '7080 콘서트' '김치메아 콘서트' 가요급 앙상블 '그린나래'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김치의 일생 퍼포먼스'는 김치의 탄생, 성장, 죽음에 이르는 전과정을 타악과 춤, 소리 등 종합예술로 엮은 난버벌 퍼포먼스다.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담그기 체험

국악 한마당·7080콘서트 등 볼거리

법을 자랑하는 '나만의 김치 레시피' 전시가 열리고 '김치아트 가든'에서는 김치 문화적 체험행사, 한지공예체험, 리본공예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볼거리·먹을 거리>=김치축제 개막행사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진행되는 '김치는 미래다'는 김치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김치의 깊은 맛과 남도의 맛과 음식

를 자랑하는 '나만의 김치 레시피' 전시가 열리고 '김치아트 가든'에서는 김치 문화적 체험행사, 한지공예체험, 리본공예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볼거리·먹을 거리>=김치축제 개막행사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진행되는 '김치는 미래다'는 김치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김치의 깊은 맛과 남도의 맛과 음식

또 '광주식도락거리' 코너에서는 광주별미와 김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 스트리트'를 주제로 열린다. 민속박물관 거리일대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광주별미거리 ▲북은지 퓨전 별미거리 ▲광주·전남 특산물 거리 코너가 운영된다. '김치 아트가든'에서는 김치 캐릭터 설치전과 배춧잎 바람개비 설치전 등 김치와 김치재료를 소재로 한 김치테마 전시가 열린다. 이밖에 김치축제 개막식 날에는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세미나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국 언론사 초청 광주 팸투어

15일 개막하는 '2008 광주김치축제'를 앞두고 중국 언론사 관계자들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는 지역 대표축제인 광주김치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중국 주요 도시 언론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에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 광주지역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지역의 주요 언론사 관계자 12명이 참가한다. 시는 홍보효과가 큰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광주가 한국의 맛과 멋이 넘치는 새로운 관광지로 이미지를 굳힐 수 있도록 음식과 전통문화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팸투어 코스도 한국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양대 축제인 광주김치축제와 남도음식문화관잔치를 포함, 향토음식박물관 음식체험, 남도전통과 현대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순천 낙안읍성, 전주한옥마을, 함평 나비생태관 등으로 구성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공동 추진하는 '중국 여행업계 대상 트래블마르ket'에 참가해 광주김치축제 등 관광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김치축제 등이 중국내에서 관광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베이징올림픽 이후 위축된 중국인의 방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서울서 '...사랑 김치 담그기' 행사

광주시는 '2008 광주김치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이벤트광장에서 '스타와 함께 하는 사랑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개그우먼 김미화, 배우 박철민 등 김치메니아를 자칭하는 스타들이 주부 50여명과 함께 김치를 담근 뒤 이를 용산구 지역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주부들은 광주 김치명인으로부터 광주식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운 다음 연예인 김치메니아와 함께 직접 김치를 담갔다. 김미화씨와 박철민씨는 김치축제 기간인 16일 낮 12시 축제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 담그는 행사를 진행한 뒤 지역 불우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광주 김치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다"며 "수도권에서도 광주김치축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천동 유스퀘어 '김치 홍보관' 개설

'2008 광주김치축제'를 앞두고 '광주 김치 홍보관'이 개설됐다. <사건> 광주시는 지난 9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안에 12㎡ 규모의 광주김치 홍보관을 설치하고 개관식을 가졌다. 김치 홍보관에는 광주·전남 공동브랜드인 '김치메아'를 담그고 시식해 볼 수 있는 체험장과 판매코너가 마련됐다. 김치관련 각종 홍보물도 비치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 해외마케팅 활동과 국내 유명 박람회에 참가해 김치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국내 다른 대도시에도 홍보관을 설치해 광주 김치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smaller ads. Top row includes '큰 농' (Big Farm), '부동산 대출' (Real Estate Loan), '알도 명사심리' (Aldo Myung's Psychology), and '모아보청기' (Hearing Aid). Middle row features '회춘의 꿈 파워마카' (Youthful Dream Power Maca) and a large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Used Car All-Brand Buy/Sell) advertisement with a picture of a car. Bottom row includes '민중영양관' (People's Nutrition Center) and '주니온제용 무역상시 수출모터스' (Junion Jeongyong Murye Sangsi Seumul Motors).